

軍 태권도 발전·국제평화 유지 활동 지원

태권도진흥재단, UN레바논 평화 유지군과 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레바논 평화유지단(부대장 대령 구석모, 이하 동명부대)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재단 정회식 연구협력실장과 동명부대 참모장 이상중 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태권도 보급, 각종 행사·대회 시 태권도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레바논 군인 및 국민, UNFIL(UN레바논평화 유지군)을 대상으로 한 동명부대의 태권도 교실 운영과 태권도 대회 개최 등에 있어 양측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명부대가 레바논 및 중동지역에서의 성공적인 평화 유지 임무 수행과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태권도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동명부대 참모장 이상중 중령은 "2007년 7월 동명부대 1진이 파병된 이래 레바논 및 중동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동명부대의 태권도 교실 운영과 민간적 등에 큰 도움이 될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재단은 레바논 평화유지단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체결했다.

에 고마움을 표하며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재단은 군 내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과 장병들에게 태권도보급과 용품 등에

지원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해외 태권도 진흥과 보급·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단은 동명부대에 태권도복 100벌을 전달하고 추후 태권도 용품을 제공하는 등 동명부대의 태권도 교실 운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보절면,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나서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관)은 최근 독거어르신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새마을회, 산악회, 사회단체, 면 전 직원이 함께 1톤 차량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집은 각종 생활쓰레기와 슬병들로 가득 차 있어 약취가 진동하고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절면 기관·단체 회원들은 방치된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침실·주방 등의 집안 청소를 나섰다.

허관 보절면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산악사고예방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남원소방서는 상춘객 및 등산객 증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산악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및 안전한 산행 확보를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등산객이 가장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지리산 바래봉과 순창 강천산 입구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해 5월말 까지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응급환자 처치 ▲간이 응급의료소 운영 ▲등산로 안전시설물과 안내표시판 정비 ▲산악사고 및 산불예방 캠페인 등과 화재 시 탈출 수단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선운산 등산로 주변 등산목 지킴이 운영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봄철 선운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선운산 등산로 주변에서 '등산목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등산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공휴일에 간이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119구급대 및 산악전문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운영한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등산객에게 상비 의약품을 제공, 기초건강 진단, 등산로 주변 순찰 안전예방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산악사고 안전 교육, 완강기 사용법 교육, 신속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고창=김영석 기자

임실경찰, 경운기 등 농기계 야광반사지 부착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8일 임실을 정재리 마을을 찾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임실경찰서 사고조사과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경운기로 농사일이거나 작업을 하다보면 농기계 후면에 흙이 묻은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야간에 차량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해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도 높아 꼭 야광반사지 부착 및 야간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거듭 환기 시켰다. /임실=전홍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알림

제39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문화행사

- ▶ 일시: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 ▶ 장소: 전주 화산체육관
- ▶ 주최: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조직위원회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전북도, 국제로타리3670지구
- ▶ 문의전화: 286-6678, 285-6676

부음

▲김재현(전주시 공보담당관실 주무관)씨 조모상= 별세일: 8일(월), 빈소: 현 대정례식장 101호, 발인: 10일(수) 오전 7시30분, 장지: 해남 화원면 선영하, 연락처: 010-5662-5327(김재현)

결혼

▲이종원(박점순씨 장남)군·전미희(전해석 전안군신림조합장·채혜선씨 처녀)양= 일시: 13일(토) 낮 12시, 장소: 진안북부미아산 마이돈 농촌 테마파크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정읍시,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탐색, 체험을 위한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꿈따드림'이 최근 6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공동주최했다. 박람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와 직업체험활동을 제공해 진로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두 29개 부스가 개설됐다.

시는 "정읍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와 직업군을 탐색하고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평소 체험할 수 없었던 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그려보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람회에는 전북과학대학교와 한국과학재단지역연회회가 협력해 대학연계관과 미래직업관을 개설했다. 청소년들이 진학 시 전공학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VR과 AR, 드론, 로봇 등 미래직업에 대한 선견지명을 키울 수 있는 부스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 체험위주의 활동이 이뤄진 어울림 마당관과 진로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는 자아탐색관도 운영됐다. 특히 특수 분장사와 건축디자이너, 푸드스타일리스트, 원예치료사 등으로 이뤄진 직업체험관도 진행됐다. 이 외에도 내장산 국립공원과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한 기관연계관 등도 함께 마련돼 성황을 이뤘다. /정읍=김대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